



우리의 작음에서 기쁨을 찾습니다.

국가 형제 회장으로로서 TAU 에 첫 글을 쓰면서 저의 형제 자매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합니다. 수많은 분들이 저의 삶에 감동을 주었고 변화를 주었습니다. 이 대림 시기에 특히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있는 데 그는 바로 Charles Markus, OFS 입니다.

저는 30 년 전에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St. Crispin 수도원에서 Charlie 를 만났습니다. 우리는 양성 과정을 같이 시작했고, 1988 년에 서약을 같이 하였습니다. Charlie 는 해군에서 제대하고 공장 노동자로 은퇴하였는데, 매일 시내를 걸어 다니는 것으로 소일을 하였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를 'Walkin' Charlie'라고 불렀습니다.

그는 양성기간 동안에 저를 많이 감동시켰습니다. 어느 날 오후, Omer Englebert 의 프란치스코 전기를 토의하고 있었는데, 찰리가 뒷 주머니에서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. 그것은 Marvel Comics 의 "우주의 형제, 프란치스코"이었는데, 그는 그 만화책을 열어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페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. 그것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"God-moment"(주님의 순간) 이었습니다.

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방법으로 감동시키십니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려고 할 때에는 바로 문제의 핵심으로 다가오십니다. 주님은 우리들 중의 하나가 되셨습니다. 주님은 인간이 되시어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작음 속으로 들어오시어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.

우리의 형제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가난을 알고자 했을 때, 프란치스코도 그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는 구유 장면을 만들어 우리들이 "우리 육체의 눈" ¹ 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실재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. 우리는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를 보고,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경이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. 단순하지만 깊이 있게.

찰리가 그 날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함과 작음의 기쁨이었습니다. 그의 프란치스칸적인 본보기가 그때에 제게 필요했고, 여러 해가 지난 지금 또 저는 그것을 다시 찾습니다.

삶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 이 시대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며, 우리는 매일을 바쁘게 지냅니다.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하려고 열심히 일합니다. 이 세상의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. ---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.

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-- 가난의 길, 작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.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이로, 빵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지고 사랑하고 붙잡을 수 있게 해 주시고, 성부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. 우리도 또한 작은 어린이들로 와야 합니다.

주님, 저희는 당신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큼 가난합니까? 저희는 권력과 소유를 원하는 경향과 열망을 마음속에서 모두 씻어내려고 노력했습니까? 저희가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? 저희는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.

주님, 저희에게 저희의 가난을 보여주십시오. 저희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도와 주십시오. 저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, 성체성사로, 또 서로에게 열도록 도와 주십시오. 저희가 회개하도록 불러주십시오. 그때에 저희는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심을 알고 저희의 작음을 기뻐할 것입니다.

우리의 가난을 인정하는 이 길 만이 우리가 주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. 우리의 작음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. 우리는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. 가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구현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.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난 속에서 우리 안에 태어날 수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.

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의 작음을 기뻐하면서, 우리의 형제 찰리는 성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. 찰리는 “매일의 아침이 성탄절이고, 매일의 저녁이 추수감사절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는데, 그는 옳았습니다.

-
1. “..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다” 는 토마스 켈라노의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30 장 “주님의 성탄에 만든 구유” 에 나오는 구절입니다. 저는 성탄 시기에 형제 회원들과 같이 이 장을 읽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. 또 이 구절은 Regis Armstrong 의 “Francis of Assisi- The Saint: Early Document vol.1 “ 254 페이지에 나오며,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.